



UCLA-NUS

글로벌 최고경영자 MBA 과정 인기

CEO 꿈꾸는 고위 임원들에게 최적의 프로그램

최근 고위 임원들을 중심으로 MBA과정에 대한 관심이 부쩍 높아지고 있다. 급변하는 세계경제에 발맞춰 그들이 직면한 위 기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최근의 리더십을 바로 바로 습득 하기 위한 것.

UCLA Anderson School of Management와 NUS(National University of Singapore Business School) 이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UCLA-NUS 글로벌 최고경영자 MBA과정'은 참가자들이 회사 경영과 경영자의 리더십에 있어서 글로벌화된 시야와 비전을 갖출 수 있도록 구성된 최상의 프로그램이다. 태평양 지역의 두 개 월드클래스 경영대학이 제공하는 최고경영자 교육을 비교적 단 기간 내에 집중적으로 수료하여 결국엔 복수학위를 취득할 수 있다는 점에서 CEO를 꿈꾸는 고위 임원들에게 최적의 프로그램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UCLA-NUS 글로벌 최고경영자 MBA과정'은 이전에 볼 수 없었던 독특한 구성으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바쁜 업무 탓에 국내에서 지속적으로 수업에 참여할 여건이 되지 않고 지역간 이동에서 자유로운 세계 각국의 임원급 MBA 수강생들은 15개월여 동안 각각 2주씩으로 구성된 총 6개의 세션을 수강하게 된다. 이 프로그램은 현업에 종사하고 있는 고위관리직의 기업인들을 대상으로 하며 아시아-미주 중심의 폭 넓고 체계적인 경영수업을 받고자 하는 이들에게 실제 조작을 이끌어 가는데 필요한 깊이 있고 실용적인 지식을 제공한다. 클래스는 다양한 국적, 문화적 배경을 바탕으로 다양한 산업에 종사하는 실무진들로 구성되며, 수강생의 50% 이상은 자신과 서로 다른 나라, 타 대륙에서 날아온 클래스메이트들과 매시간 풍부하고 광범위한 주제의 토론을 통해 다른 최고경영자 MBA 수업과 차별화된 메리트를 제공받게 된다.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이뤄지는 집중적인 교육 일정을 통해 참가자들이 현재 맡고 있는 직책과 업무에 최대한 지장이 없도록 하고 그들의 해외 출장 근무 일정과 수업참여를 병행 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있다. 15개월 동안 총 6개의 세션이 진행되며, 3개월 마다 돌아오는 한 세션당 수업기간은 2주로 수업이 진행될 각각의 장소에 수강생들을 위한 거주지를 마련해 놓고 있다. 세계 각지에서 모여든 참가자들은 세션이 진행될 국가에 각각 2주 동안 머물면서 수업에 참여하고, 각 세션이 종료한 후에는 프로그램을 통해 얻어진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다시 업무에 복귀하여 곧바로 실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UCLA-NUS 글로벌 최고경영자 MBA과정'을 통해 취득하게 되는 학위는 두 대학이 개별적으로 운영하는 풀타임 MBA 프로그램 학위와 동등하다. **CEO**

이대열 기자(dy@ceomagazine.co.kr)

"서양인과 아시아인의 관점을 동시에 접할 수 있는 UCLA-NUS Global MBA 프로그램은 세계적으로 저명한 교수진과 함께 고민할 수 있는 기회와 급변하는 글로벌 시대에 현업에 가장 필수적인 리더십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UCLA Anderson 경영대학원장 및 UCLA-NUS Executive MBA 주임교수, Chris Erickson-

"프로그램의 독특한 커리큘럼 덕분에 현업과 병행하면서 충분히 학업에 몰두할 수 있었으며, 또한 4가지의 다양한 접근방법으로 비즈니스를 하는 근본적인 통찰력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욱 중요한 부분은 다양한 분야와 지역에서 온 동료로부터 배울 수 있는 현장 경험과 지식을 바로 나의 분야에도 활용하고 적용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험은 저의 경력관리에도 아주 중요한 디딤돌이 되었습니다."

- UCLA-NUS EMBA 2009, 조성범 Wesley Language School 창업자-

All Eyes on UCLA-NUS Global Executive MBA Program Best Fit for Senior-level Professionals who Hope for Top Positions

Rapid globalization and the complexity of today's competitive business environment have increased demand among senior executives for a management education that exposes them to the latest knowledge in best leadership practices and tools to meet the challenges ahead.

The UCLA – NUS EMBA program, developed jointly by UCLA Anderson School of Management and NUS Business School, provides participants with a truly global perspective on leadership and management. This dual-degree, part-time intensive program is the ideal preparation for top positions in organizations around the world by taking advantage of the immense resources of two Pacific Rim powerhouse business schools in meeting the future needs of organizational management.

The UCLA-NUS Executive MBA is a unique one-of-a-kind program structure comprising 6 two-week segments over a 15-month period that allows participants to attend from all over the globe and accommodates the demanding schedules of busy executives who might be located in any geographic region and cannot attend locally-based programs.

The program is designed for senior working professionals with a record of achievement and demonstrated leadership ability who would like to gain an extensive, well-balanced general management education with a primary focus on Asia and North America and provides the breadth and depth of knowledge, and tools and skill sets necessary to lead organizations.

The class is uniquely diverse not only by nationality, culture, and industry and functional backgrounds, but importantly, participants are currently both working and living in very different parts of the globe. This is probably the only program where some 50% of participants fly in for segments from other continents (not only countries), making for an enormously rich classroom discussion and learning experience for all. Participants are awarded two globally recognized MBA degrees - one from UCLA and one from NUS - the same MBA degrees as each university's other MBA programs (full-time, fully-employed and executive programs).

"Drawing from deeply embedded knowledge of North American and East Asian perspectives, the UCLA-NUS Global Executive MBA program provides participants with the opportunity to learn from world-renowned and award-winning faculties and develops them into leaders with essential skill sets and leadership capabilities that are directly relevant to the most critical business and organizational issues in our rapidly globalizing world," said UCLA Anderson Senior Associate Dean and Professor Chris Erickson, Academic Director UCLA – NUS Executive MBA Program.

"The unique format of the program really allowed me to fully immerse myself and gain first-hand valuable insights into four different approaches of conducting business without interrupting my regular work schedule. But more valuable was the fact that I was able to immediately apply what I learned alongside executives from different industries and regions, which was a beneficial stepping stone for my professional career," said Cho Sung Bum (Wesley Cho), UCLA – NUS EMBA Class of 2009, Founder & President, Wesley Language School, Co., Ltd., Buncheon City, Gyeonggi-Do, Seoul, Korea.